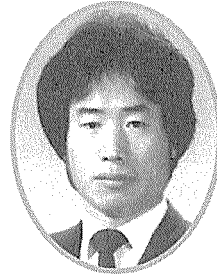


특집 /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의 의의와 특징



〈4〉 학교도서관

변우열*



최근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현장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인적자원부가 2002년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수립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학교도서관을 종합적인 교수·학습센터로 구축하여 자료중심교육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문제해결능력을 육성시켜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수십년간 방치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 사업은 빈약한 시설과 장서, 사서교사의 절대부족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선학교에서는 빈사상태가 되어버린 학교도서관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구축해야하는지, 또 학교도서관을 구축하고 나서 어떻게 교육적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2003년판 학교도서관 기준을 새롭게 제정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학교도서관을 구축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은 말 그대로 법적 구속력이나 절대적인 지침은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도서관의 비전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좌표로 삼을 수 있으며,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하면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2003년판 학교도서관 기준과 1981년에 제정된 학교도서관 기준의 차이점과 특징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문헌정보교육학과 교수, wybyun@kongju.ac.kr

1. 2003년 기준의 특성과 1981년 기준과의 차이점

2003년 기준은 1981년 기준과 마찬가지로 수량적인 지표를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학교도서관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학교도서관이 이미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양적인 기준을 지양하고 질적인 기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을 새로이 구축하고, 바람직한 운영 방향을 처음부터 정립해 나가야 하는 우리의 실정에서는 양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수량적인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또한, 2003년 기준은 학교도서관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수준(desirable level)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반적으로 교육행정가나 학교를 직접 운영하는 학교장은 최저 기준을 최고의 기준으로 간주하여 겨우 기준에 도달한 것을 마치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저 기준이 아니라 바람직한 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하였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게 기준을 너무 높게 책정했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으나 학교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전체적인 좌표로 이해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1981년 기준과 2003년 기준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학교도서관의 평가영역을 추가하여 독립된 장으로 다루었다.
- ② 봉사영역에 포함되어 있었던 도서관이용지도와 독서교육의 내용을 독립시켜 별도의 장으로 설정하였고, 최근 학교도서관의 교육 봉사 영역으로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정보활용교육(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의 이념을 반영하여 정보이용교육과 독서교육의 내용을 다루었다.
- ③ 학교도서관에 필요한 기기와 비품은 그 종류와 수량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일반적인 지침만을 제시하였다.
- ④ 학교도서관의 조직은 시·도별 혹은 학교 급별로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조직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2. 2003년판 학교도서관 기준의 특징

2003년판 학교도서관 기준은 1981년에 작성된 학교도서관 기준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만, 1981년 기준이 출판된 이후 20여 년이 경과하여 도서관 환경, 다시 말해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였고, 제7차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기능과 평가의 문제를 별도의 장으로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번에 새로이 작성한 2003년판 기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도서관의 사명과 목적을 재 설정하였다. 지식기반사회의 등장으로 교육의 이념이나 목표 그리고 교육 내용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교육 환경이 변화하면서 학교도서관의 새로운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목표 달성과 교육과정 전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수·학습센터로서 규정하고, 자료중심교육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을 육성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 ② 학교도서관의 조직은 과거와는 달리 독립 부서로 편제되도록 하였으며, 인적자원에 있어서는 학교 규모에 따라서 사서교사와 실기교사 등의 적정 인원수를 배치하도록 규정하였다.
- ③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중요한 영역으로 취급하여 별도의 장으로 설정하고 정보이용교육과 독서교육의 내용을 다루었다.
- ④ 학교도서관 평가영역을 신설하였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시·도교육청 평가와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평가에서 학교도서관이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학교도서관을 자체적으로 가능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2003년 기준에서는 학교도서관 평가영역을 별도의 장으로 추가하여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 ⑤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컴퓨터 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도서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 ⑥ 기준을 제시함에 있어서 지표를 계량화하여 공식에 의거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시설 부문에서 많은 부분을 공식화하였다.

3. 향후의 과제

1981년 기준이 출판된 후 20여년 만에 새로운 기준이 탄생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지식기반사회에 따른 교육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또한 그 변화의 속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따라서, 2003년도 기준에 만족하지 말고, 학교도서관 기준은 5년 또는 10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에 마련될 학교도서관 기준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도서관 정보네트워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겠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따라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웹 기반 학교도서관 정보시스템(DLS)을 설치하여 일선 학교에서 쉽게 업무(수서, 정리, 대출·반납, 정보검색 등)를 처리하고, 정보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일차적으로는 시·도교육청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전국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국가적인 학교도서관 교육공동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물론 지역사회의 각종 문화기관 및 학부모들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지역에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협력하여 학교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새로이 작성한 2003년판 기준이 학교도서관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여 학교도서관을 혁신하고, 교육의 핵심적인 기관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학교도서관을 처음으로 구축하거나 신축하는 학교에서는 유용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어느 정도의 기반을 갖춘 학교에서도 인적자원 확보, 시설과 장서확충, 예산 확보, 교육프로그램 준비, 평가 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끝)